

## 언어접촉과 차용어(IV)\*

### -영어어휘에 미친 독일어의 영향-

김건환(건국대)

#### 1. 들어가는 말

독일이 점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독일민족은 역사적으로 많은 이웃민족들과 끊임없는 접촉과 교류 속에서 살아왔으며, 독일의 문화는 인접하고 있는 많은 이웃민족들의 문화와의 끊임없는 상호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의 교류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언어접촉의 결과로 야기되는 언어차용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상호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독일어는 인접외국어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외국어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로마인들은 게르만인들로부터 많은 어휘들을 차용해서 사용하였는데, 게르만어의 *ūrūs* ‘Auerochs, 들소’; *alces* ‘Elch, 고라니’라는 단어는 시저(Cäsar)를 통해서, *framea* ‘eine Art Speer, 창의 일종’; *glaesum* ‘Bernstein, 호박’은 타키투스(Tacitus)를 통해서, 그리고 *ganta* ‘Gans, 거위’와 *sapo* ‘Schminke, 화장품’ 등의 낱말은 플리니우스(Plinius)<sup>1)</sup>를 통하여 로마에 전달되었고, 라틴어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많은 색채어가 게르만어에서 라틴어로 유입되어졌는데, 예를 들면 게르만어에서 흰색(*weiß*)을 뜻하는 *hwita-*, 갈색(*braun*)을 뜻하는 *brūn*, 회색(*grau*)을 뜻하는 *grēwa-* 그리고 푸른색(*blau*)을 뜻하는 *blāws*는 각기 라틴어를 거쳐 이탈리아어의 *bianco*, *bruno*, *grigio*,

2) 차용어란 모국어에 유입된 외래어의 낱말을 뜻하는데, 차용어와 외래어의 구분은 모국어에 유입되어진 외국어가 모국어에 어느 정도로 동화되어졌는가에 따라, 즉 ‘동화의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차용어와 외래어의 구분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도 때때로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참조: 김 건환 1999:53-54).

1) Gajus Julius Cäsar(기원전 44년에 사망): 로마의 무장이며 정치가이다. Publius Cornelius Tacitus(55-120): 로마의 문필가이며, 역사가이다. Plinius der Ältere(23-79): 로마의 장교이며, 문필가이다.

biavo로 프랑스어의 blanc, brun, gris 그리고 blou로 나타났다 (Polenz 1978: 22; Kluge 1975: 82, 97, 268, 849).

이처럼 독일어는 역사적으로 라틴어를 비롯하여 프랑스어, 영어, 슬라브어 등과 같은 인접어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인들과 영국, 미국인들간의 역사적 접촉과 함께 어떠한 독일어 어휘들이 영어에 차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시대적 배경과 함께 조사해 보고자 한다.

## 2. 영어와 게르만어-영어의 생성과 게르만인의 역할

영어의 그 출처로 보아 게르만어에 속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 차용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전에 영국 섬 지방에 살고있던 켈트인들과 게르만인들의 역사적 관계를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기원 후 370년경부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고, 449년에는 최초의 게르만인들이 영국의 남동쪽 끝에 있는 현재의 Kent 주에 상륙하였다. 이는 영국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영국으로부터 철수한 후 북쪽에 있던 호전적인 Schotten족과 Pikten 족의 공격으로부터 영국을 지켜달라는 영국 군주의 간곡한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영국땅에 상륙한 게르만인들은 그 후 켈트인들과 싸워 켈트인들을 영국의 서쪽지역으로 쫓아내고 영국 땅을 점령하였다. 이때 영국 섬의 큰 부분을 차지한 게르만 부족들은 Jüten, Sachsen 그리고 Angeln족이었다. Angeln족은 그 후 정치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고, Englalond라는 말은 게르만 부족들에 의해 점령되어진 전체 섬지역에 대한 표현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Englisc라 일컬어졌다(Scheler 1977:12-13).

## 3. 영어와 독일어의 언어 접촉

### 3.1 영국영어와 독일어

켈트어가 영국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사람들의 언어였고, 스칸디나비아

어와 프랑스어가 바이킹인들과 노르만인들과 함께 영국에 유입되었으며, 라틴어가 교회어, 관청어 그리고 지식층의 언어로 수백 년 동안 영국에서 사용되어졌던 반면, 독일어가 영어에 미친 영향은 별로 많지 않은 듯 하다. 이는 영어의 출처와 독일어의 출처가 모두 게르만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일견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게르만인의 영국점령이후 얼마동안은 영국과 독일의 직접적인 접촉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영국과 독일의 접촉은 우선 7세기와 8세기 경에 있었던 앵겔작센 족의 대륙 선교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으로 항해와 무역분야에서 있었는데, 항해와 무역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저지독일 지역과 이루어졌다(Scheler 1977:26-27).

11세기부터 있었던 한자(Hanse)는 당시의 영국의 무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자의 배들로 동해와 북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과 영국 사이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12/13 세기부터는 독일의 Köln을 비롯한 Lübeck, Hamburg 등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영국에서 한자의 중요성은 15세기 초까지만 계속되었다. 16세기가 지나면서 그들의 영향은 사라졌다. 물론 독일 언어권과의 무역관계는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중세에는 독일의 광부들이 영국의 광산에서 일을 했으며, 또한 이 시대에는 네덜란드의 해상무역활동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어를 통한 저지 독일어의 영향이 영어에 미치게 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독일간의 문화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517년에 있었던 Martin Luther의 종교개혁은 영국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때 종교와 관련된 몇 개의 독일어 낱말들이 영어에 차용되었다. 그 후 독일에서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과학과 관련된 독일어들이 영어에 차용되었다. 특히 1714년부터 1837년까지 지속되었던 독일 하노버국과 영국과의 군합국(君合國: Personalunion)<sup>2)</sup>관계로 영국과 독일의 관계도 또한 긴밀해 졌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까지에는 독일문학과 독일 철학에 대한 영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양국의 문화교류가 한층 활발해 졌고, 이로써 독일의 자연과학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과 철학 그리고 언어학과 같은 정선과학 분야에서도 독일어 어휘들이 영어에 차용되

2) 군합국(君合國): 두 개의 국가가 한 사람의 군주를 섬기는 결합국을 말함. 이 경우에 양국가는 정부를 공동으로 함을 통례로 한다. 그러나 Hannover와 England는 하나의 군주 하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

었다.

### 3.2 미국영어와 독일어

북미 대륙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진 때부터 독일인들은 새로운 대륙의 건설에 참여하였다. 초기 식민지 시대에는 비록 그 수는 작을지라도 항해자들 가운데는 늘 독일인들이 끼어 있었다.

미국으로 이민해온 독일인들은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또는 가족 단위로 왔으나, 후에는 큰 그룹이 함께 도착하였고 순수한 독일인 정착지를 만들었다. 최초의 순수한 독일인 정착촌은 1683년에 설립된 독일인 촌락(Germantown) Pennsylvania 였다. 18세기에는 이러한 순수한 독일인 정착촌들이 다른 개척지에서도 발전하였다. 특히 New York, New Jersey, Maryland, Virginia, North and South Carolina, Georgia 그리고 New England 개척지에서 이러한 정착촌들이 있었다. 그래서 1775년에 있었던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많은 수의 독일인들이 미국의 여러 개척지들에 산재해 있었다.<sup>3)</sup>

그 당시 독일인들은 전체 식민(개척)지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되었으며, Pennsylvania에서는 주민의 3분의 1이 독일인이었다고 한다.

19세기 말 독일인들은 미합중국의 모든 주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일하고 있었다. 독일적 요소들은 19세기의 미국사회에서 48개 주 중 27개 주에서 모든 다른 민족들의 외래적 요소들을 능가하였다 (Stone 1934: 3f.).

20세기에 들어서도 많은 독일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다. 특히 나치 치하에서 살수 없었던 독일의 지식인들, 특히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많은 지식인들과 그 외의 독일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 이러한 미국이민의 물결은 2차대전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특히 나치치하를 떠나 미국에 이주한 많은 독일의 지식인들은 미국사회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Albert Einstein 과 같은 과학자들이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많은 독일인들이 미국사회의 모든 지역과 영역에 분

3) 당시 미국에 있었던 독일인들의 수는 Pennsylvania에 110,000명을 위시로 해서 모두 합쳐 대략 225,000명이었다고 한다(참조: Stone 1934:3f.).

포되어 능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적인 요소들과 독일인들의 문화는 미국인 모두의 문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 미국 영어에 독일어적 요소들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초기 미국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 차용어는 영국 영어 또는 라틴어와 프랑스어 속에 들어있는 독일어 차용어가 유입된 경우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독일인들의 미국이주로 인한 독일어와 영어의 직접적인 접촉과 혼합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 차용어

##### 4.1 초기 상황 - 고대 영어시대 (8세기 초 - 1066년)<sup>4)</sup>

영어와 독일어의 언어접촉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7세기와 8세기 경에 있었던 앵겔작센 족의 선교에서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영어와 독일어의 상호 영향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영어에서 독일어의 어휘를 차용한 것이 기록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독일어 어휘들은 영국과 대륙 간에 있었던 당시의 선교활동의 결과로 고대 영어에 차용된 낱말들이었으며, 이때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는 모두 10여 개 정도였다고 한다. 그것들은 모두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으며, 그때까지 영어에는 없었던 낱말들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고대영어(ae.)의 *cugle*은 고대 고지독일어(ahd.)의 *cuculla* 'Mönchskappe'로부터 차용된 낱말인데, 이는 오늘날 승모(僧帽)를 뜻하는 것으로 그때까지 영어에는 없었던 새로운 낱말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차용조어들(Lehnprägungen)이 독일어의 영향으로 생겨났다(Stanforth 1996: 38):

- ae. *aeweward* 'Priestertum, 성직자의 직'
- ae. *amansumian* 'exkommunizieren, 파문하다, 제명하다'
- ae. *camphad* 'der Kriegsdienst Gottes, 하나님의 병역'
- ae. *dryhtenlic* 'des Herrn, 지배자의'

4) 1066년은 영국의 앵겔작센족이 노르만족에 정복된 해로서, 이때부터 영어와 로만어가 혼합되게 되는 것이다(참조: Müller, Helmut M. 1994:147).

- ae. forbyrd ‘Enthaltbarkeit, 금욕’
- ae. fullness ‘die Komplet, 저녁기도’
- ae. gehaben ‘sich enthalten, 절제하다’
- ae. gemaensumnes ‘Abendmahl, 영성체, 최후의 만찬’
- ae. niwcumen ‘Novize, 예비신부(수녀)’
- ae. timbran ‘(moralisch) erbauen, 신앙심을 일으키게 하다’

또한 현대영어의 색채어들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게르만어에서 유래되어 라틴어를 거쳐 고대 영어에 차용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현대영어의 blue(푸른)는 게르만어의 blāws에서 유래되었다(Kluge 1975:82).

#### 4.2 중세영어시대 (1066년 - 1500년)

11세기 노르만인들에 의한 영국정복과 함께 영어에는 로만어의 영향과 함께, 원래의 고지 독일어 낱말들이 유입되게 되는데, 이러한 낱말들 중 다음의 몇 개는 정복자의 언어 속에 묻혀 영국으로 들어온 덕분에 고대 영어에 있었던 대응되는 다른 낱말들을 밀어내고 오늘날까지 영어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 당시 독일어가 영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분야는 군사, 사냥, 광업 그리고 항해와 관계되는 낱말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현대영어의 garb ‘Kleidung, 옷’은 고대고지독일어의 garawe ‘Rüstung, 갑옷, 무장’이라는 군사용어에서부터 유래되었고, 고대영어의 gearwe는 포기되었다. 그러나 현대 영어에서는 북방게르만어의 영향으로 garb 이외에 또한 그것과 유사한 gear ‘Ausstattung, Ausrüstung’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현대 영어의 robe ‘Kleid, 옷’과 to rob ‘stehlen’도 고대고지독일어의 roup ‘spolia, 약탈’, ‘erbeutete Rüstung des Erschlagenen, 정복자로부터 약탈한 갑옷’이라는 군사용어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것은 고대영어 reaf, reafian을 밀어냈다.

사냥 분야에서 차용된 현대영어의 quiver ‘Köcher, 화살통’도 고대고지독일어의 kohhar에서 유래되었으며, 어원적으로 이에 유사한 고대영어 cocur를 밀어냈다.

이처럼 고대 영어가 이미 고유한 어휘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고대 독일어로부터 유사한 어휘들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은, 외래 어휘의 차용이 한 언어의 모자라는 어휘, 즉 어휘조직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의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tanforth 1996:40-41).

중세영어시대부터 독일 광부들이 영국의 주석, 아연 그리고 은 광산에서 일했기 때문에, 당시 광산업과 광물학 분야에서도 독일어 차용어가 영어에 유입되었는데, 예를들면 고지독일어의 Glanz로부터 네덜란드어의 glans를 거쳐 glance-ore ‘Glanz-Erz, 휘광석’가 1458년 독일어에서 영어에 차용되었다.

또한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초기에 독일어에서 영어에 유입된 차용어 들중에는 다음과 같은 항해분야와 무역분야에서 유입된 표현들이 많았다: luff ‘Luv, 이물의 만곡부’; buoy ‘Boje, 부표’; hoist ‘hissen, 기를올리다’; dock ‘Dock, 도크’; to cruise ‘kreuzen, 순항하다’; yawl ‘Jolle, 일종의 작은 범선’; schooner ‘Schoner, 스쿠너배’; caboose ‘Kombüse, 상선 갑판위의 요리실’; Brunswick ‘Braunschwig의 Textilwaren(방직제품)’; guilder ‘Gulden, (옛날:) 금 및 은 화폐의 이름’; drilling ‘Drillich, Drilch, 나사송곳’ 등등.

16세기 이전에 독일어에서 유입된 차용어는 대부분이 네덜란드어나 저지독어 또는 프랑드르어에서 왔으며 고지독일어에서는 거의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당시의 영국의 문화와 상업교류가 남부 독일의 도시들과는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로 네덜란드 그리고 Hanse도시들과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독일어와 네덜란드어의 출처를 구분할 수 없으며, 단지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Stanforth 1996:42).

### 4.3 근대 영어

#### 4.3.1 16-17세기

##### (16세기)

16세기의 독일인들은 인류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몇 가지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는데, 1450년의 Johann Gutenberg가 발명한 금속활자와 1517년

Martin Luther가 이룩한 종교개혁이 그것이었다. 1517년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시작됨으로써, 종교개혁과 함께 최초의 완전한 고지독일어의 차용어가 영어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Gutenberg의 인쇄술이 없었던들 루터의 새로운 사상이 그렇게 빨리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 없었을 것이며, 종교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의 종교개혁과 Gutenberg의 금속활자 발명은 같은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부터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 차용어는 네덜란드의 중간 단계를 거치기도 했지만, 고지독일어의 근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어휘의 차용연대가 대부분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함께 영국에 미친 문화적인 영향과 종교개혁의 의미와 비교해 보면, 종교개혁으로 인해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 차용어의 숫자는 놀랄 만치 적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 차용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papist ‘(경멸적으로) 카톨릭교도’(1521), Romanist ‘(경멸적으로) 로마 카톨릭교도’(1523); silverling ‘Silberling, 은, 은화’(1526); weakling ‘Weichling, 병약자’(1526); mercy seat ‘하느님의 자리’(1530); shewbread ‘제대에 올리는 빵’(1530); Anabaptist ‘재침례교도’(1532); firstling ‘Erstling, 첫 수확’(1535); Protestant ‘신교도’(1539); sinflood (1550)등<sup>5)</sup>.

또한 이 시대에 독일어에서 영어에 차용된 어휘로는 다음과 같은 wine-과 결합된 여러 차용번역어들이 있다: wine-garden ‘포도원’(1535); wine-harvest ‘포도따기’(1535)<sup>6)</sup> 등등.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그리고 특히 성경 번역작업으로 인하여 영어에 차용된 독일어 낱말들보다는 같은 기간에 독일어에서 차용된 식물명칭들이 더 많았는데, 이는 William Turner, Henry Lyte등과 같은 영국의 식물학자들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물명칭들이 당시 영어에 유입되었다: boor’s mustard ‘갓’(1548); cornel-tree ‘산딸나무 속의 관

5) Papist와 Romanist는 1520년에 루터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mercy seat는 루터의 Gnadenstuhl로부터 온 차용번역어이다. 또한 shewbread는 루터의 Schaubrot에서 차용되었다. 또한 Silverling, weakling 등의 어휘들도 루터의 영향으로 영어에 차용되었다(참조: Stanforth 1996:43-44).

6) wine-garden은 루터 성경책에 있는 Weingarten의 차용번역어이며, wine-harvest는 Weinlese의 차용번역어로서 1535년 Coverdale의 성경 번역서에 처음 나타났다 (참조: Stanforth 1996:43).



목의 일종'(1551); neese-wort(1548); spindle-tree '화살나무'(1545); swallow-wort '애기똥풀'(1548); larch 'Lärche, 낙엽송'(1548); thoroughwax (1548); digitalis '디기탈리스'(1568); hask-wort (<dt. Halskraut); hasel-wort; hirse '기장'; hole-wort; pestilence-wort; rose-wort; crowberry 'Krähenbeere, 덩굴월굴의 일종'(1597).<sup>7)</sup>

그 외에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carouse '(동사) trinken, 마시다'(1559); dollar '(화폐) 달라'(1533); landsknecht 'Landsknecht, 용병'(1530); fife 'Pfeife, 저, 저를 부는 사람'(1548); halt '정지하다'(1591); junker '독일의 젊은 귀족'(1554); kaiser '카이저'(1550); wiseacre 'Besserwisser, 현자(현인)(1593).<sup>8)</sup>

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16세기에 영어어휘에 차용된 독일어 어휘는 주로 종교와 관련된 어휘였거나 식물명칭과 같은 전문어휘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양적으로 볼때는 아주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어휘들 중 몇 개는 사라졌고, 나머지들은 전문 용어들로서 일반 생활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어휘들이다.

또한 16세기까지는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있었던 무역, 항해 그리고 영어와 네덜란드어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들이 영어와 네덜란드의 언어교류를 촉진시킨 반면, 영어와 고지독어와는 직접적인 언어접촉이나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어휘들을 제외하고 이

7) thoroughwax는 Turner가 Durchwassz에서 만든 차용변역어이고, digitalis는 독일의 식물학자 Fuchs가 현대 독일어 어휘 Fingerhut를 라틴어화한 것이다. 1578년에 출간된 Henry Lyte의 Niewe Herball에 의하면 hole-wort는 독일어의 holwurtz이며, 영어로는 hole wort 또는 hollow root의 뜻이다. 위의 낱말들 중 몇 개의 낱말들은 낱앗거나 또는 hirse가 millet(기장: 식물이름)에 의해 대치된 것처럼 다른 낱말들에 의해 대치되었거나, 식물 전문용어에 속한다. 단지 larch(낙엽송)는 현대 영어의 일상어휘에 속하며, digitalis(디기탈리스: 식물이름)는 약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참조: Stanforth 1996:44-45).

8) carouse는 독일어의 gar aus (trinken)에서 프랑스어를 거쳐 차용되었으며, dollar는 고지독일어의 Thaler에서 시작되어 저지독일어 또는 네덜란드어를 거쳐서 차용되었다. landsknecht는 독일어의 Landsknecht로부터 그리고 fife는 독일어의 Pfeife 또는 프랑스어의 fifre에서 유래되었다. halt는 스페인어 alto를 거쳐 차용되었으며, wiseacre는 중세고지독일어 wissager 'Weis-, Wahrssager'에서 중세 네덜란드어/중세저지독일어 wijssager(wijsseggher 'soothsayer')를 거쳐 영어에 차용되었다(참조: Stanforth 1996:45-46).

시대에 있었던 대부분의 독일어 차용어들은 네덜란드어나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와 같은 하나의 중간단계를 거쳐서 영어에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Stanforth 1996:46-47).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비록 문화관계가 반드시 언어의 교류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어적 교류는 항상 일정한 정도의 문화접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차용어들이 독일어와 당시 네덜란드어에서 유입되었는데, 예를 들면 drum ‘Trommel, 북’(1540); switch ‘스위치’(1592); luck/lucky ‘운/운이 좋은’(1530); brake ‘제동기’; gimp ‘꼬은 줄’; hanker ‘갈망하다’; isinglass ‘아이징글라스(어류)’; skate ‘schaats, 스케이트’; waggon ‘수레’<sup>9)</sup>; snap ‘찰각하고 소리내다’; landgrave ‘Landgraf, 지방태수’(1516); kreutzer ‘Münze, 독일에서 사용하던 동화(은화)’(1547)와 같은 낱말들이 그것이다(Pyles 1993:302-304; Scheler 1977:27-29).

### (17세기)

17세기의 독일은 유럽의 전쟁터로 전락하였다. 1618년에서 1648년 사이에 있었던 30년 간의 종교전쟁이 그것이었는데, 이 30년 전쟁의 긴 기간동안 유럽 각국 병사들이 서로 접촉하는 기회가 생기고, 그 결과 독일어도 많은 다른 언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었다.

17세기까지에도 영어에는 주로 저지독어와 네덜란드어들이 많이 차용되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네덜란드의 해상활동이 왕성하였고, 영국은 저지 독일지역과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항해와 관련된 어휘들이 계속해서 영어에 차용되었으며, 또한 네덜란드사람들과 프랑스로 사람들이 당시 피복제조업에 이름이 나있었기 때문에 피복 제조업과 관련된 어휘들도 영어에 차용되었다.

당시 군대 용어가 차용된 것은 영국이 네덜란드와 군사적으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특히 위에서 언급한 30년 전쟁으로 인한 각국 언어의

9) waggon은 고대영어로는 wagon이었는데, 이는 네덜란드어의 wagen에서부터 유래하였고, 이 네덜란드어의 wagon은 토박이말로는 wain (dial. /poet.)이었다. 현대 영어에서는 waggon과 wagon이 함께 쓰인다.

접촉과 혼합의 영향으로 네덜란드어와 더불어 저지독어 및 고지 독어의 어휘들이 영어에 많이 유입되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들 보다는 부유한 편이어서, 네덜란드인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도 열중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낱말들이 많이 영어에 차용되었고, 즐겁게 노는 어휘들도 네덜란드어에서 차용되었다. 또한 Rembrandt (1606-1669)와 같은 당시 네덜란드 화가의 그림은 영국에서도 높이 평가될 정도로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림과 관련된 어휘들도 많이 차용되었다. 대략 중세후기부터 17세기까지 영어에 차용된 독일어와 네덜란드어들은 다음과 같다<sup>10)</sup>:

1) 항해와 관련된 어휘들: boom ‘spar, 수로표시’; bowline ‘돛을 팽팽하게 하는 밧줄’; bowsprit ‘제 1사장’; commodore ‘제독’; deck ‘갑판’; freight ‘운송화물’; keel ‘배가 뒤집히다’; lighter ‘flat-bottomed boat, 바닥이 평평한 보트’; marline ‘큰 물고기의 종류’; rover ‘pirate, 해적’; scow ‘거룻배’; skipper ‘schipper, 작은 배의 선장’; sloop ‘외돛배의 일종’; smuggle ‘밀수하다’; split ‘약탈’; yacht ‘Jacht, 요트’ 등.<sup>11)</sup>

2) 피복제조업에 관련된 어휘들: cambric ‘Batist, 고급아마포’; duck ‘옷의 일종’; duffel ‘더플(성긴 모직물의 일종)’; nap ‘Noppe, (피륙표면의) 작은 마디’; pea jacket ‘두꺼운 나사천 자켓’; spool ‘실패’ 등.

3) 군대 용어: beleaguer ‘포위하다’; forlorn hope ‘잃어버린 병사의 무리’; furlough ‘Urlaub, 휴가’; knapsack ‘배낭’; kit ‘나무통’; onslaught ‘Anschlag, 습격’; tattoo ‘Zapfenstreich, 귀영나팔’; fieldmarshal ‘육군 원수’(1614); howitzer ‘곡사포’(1695); plunder ‘약탈’(1630); spanner ‘스패너(공구의 일종)’(1639); staff ‘참모’(1700); lifeguard ‘구조원’(1648).<sup>12)</sup>

10) 물론 어떤 낱말들이 저지독어의 언어로부터 차용되었고, 어떤 낱말이 네덜란드어에서 차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저지독어와 네덜란드어는 서로 서로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11) deck는 네덜란드어의 dec ‘roof’로부터 유래되었으며, freight는 중세 네덜란드어의 vrecht ‘dt. Fracht’로부터 유입되었다. marlin이라는 물고기의 이름은 marlinespike의 준말이다. smuggle는 저지독일어의 smuggelen (nhd. schmuggeln)에서 유입되었으며, split는 초기에는 ‘break a ship on a rock’의 뜻으로 쓰였다(참조: Scheler 1977:27).

12) forlorn hope은 독일어의 verlorener Haufe와 같은 의미이며, verloren hoop ‘lost

3) 음식물과 관련된 어휘들: booze ‘술, 주연’; brandy ‘화주’; gherkin ‘(초 조림용의)작은 오이’; gin ‘진(화주)’(genever의 단축형); hop ‘홉’; pickle ‘오이지’.<sup>13)</sup>

4) 향락과 관련된 어휘: frolic ‘rant, 대단히 명랑한(merry)’.<sup>14)</sup>

5) 그림 그리기와 관련된 어휘들: easel ‘Staffelei, 화가(畫架)’; landscape ‘Landschaft, 풍경’<sup>15)</sup>; maulstick ‘화가의 팔받침’(Scheler 1977:27-29).

그러나 이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고지독어 어휘들이 영어에 차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루터의 신조어들이 영어에 나타났으며, 또한 몇 개의 독일 신비주의(Mystik)의 어휘들도 영어에 유입되었다: theologaster(1628), theologist(1638); pietism ‘Pietismus’

---

troop’으로부터 온 민간어원에서 개조된 것이다. 네덜란드어 hoop은 영어의 heap과 어원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참조: Pyles 1993: 302). furlough는 네덜란드어 verlof (= nhd. Verlaub)에서 유입되었고, kit 는 원래 군인들의 장비를 운반하는 배를 의미하였으며 onslaught는 최초 1625년에 네덜란드어 aenslag에서 영어에 유입되어, 그 후 W. Scott에 의해 쓰여졌다. tattoo는 원래 네덜란드어의 taptoe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는 1618년부터 1648년 사이에 있었던 30년 전쟁 때 훈련을 마친 후 병사들이 맥주통의 마개를 두드리며 여흥을 즐겼다는데서 연유한다고 한다. 즉 영어로는 ‘drum signal, 군대 여흥(연회)’과 같은 뜻이었다(참조: Scheler 1977:27);

fieldmarshal은 독일어의 Feldmarschall의 차용변역어이며, howitzer는 책코어 Haubitza가 현대독일어를 거쳐서 영어에 유입된 것으로 현대 영어의 군사용어로 확실한 자리를 잡았다. plunder라는 어휘는 30년 전쟁 당시 독일어의 plündern에서 유래되었다. spanner는 원래는 Schußwaffe (총포)에서 Federspanner (용수철 드라이버)를 의미하였다가 1790년부터는 Schraubenschlüssel(나사 돌리개)을 의미한다. staff는 현대독일어의 Stab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차용의미이며, lifeguard는 고지독어의 Leibgarde나 혹은 네덜란드어의 lijfgarde의 번역어이다(참조: Stanforth 1996:49).

13) brandy는 brandewine의 약어로서 네덜란드어의 brandewijn에서 유래하였으며, 이것이 현대고지독어의 Brandwein이 된 것이다. brandy wine의 정확한 의미는 태운 술(gebrannter Wein)을 뜻한다(참조: Scheler 1977: 27). 또한 pickle은 중세네덜란드어 pekel (nhd. Pökel)에서 유래하였다.

14) frolic은 독일어의 fröhlich와 네덜란드어의 vrolijk에서 온 단어이며, 영어의 joyful의 의미를 갖는다.

15) landscape는 중세 네덜란드의 lantschap으로부터 유래했으며, 여기서 현대 네덜란드어 landschap가 만들어졌다(참조: Scheler 1977:27).

(1697); ownhood ‘독점권’(1646); selfhood(1649); Rosicrucian(1624); Pansophy ‘박식’(1642); Taborite ‘타보르파(의 사람)’(1646).<sup>16)</sup>

17세기도 영국과 독일의 정신과학 분야에서의 관계는 대단히 긴밀했지만, 이 분야에 미친 어휘의 영향은 대단히 작았다고 볼 수 있다.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독일어에서 유입된 영어의 몇 개의 단어들은 Paracelsus와 Kepler<sup>17)</sup>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 Paracelsus의 laudanum ‘아편제’(1602); salamander ‘불도마뱀’; sylph ‘대기의 요정’; undine ‘물의 요정’(모두 1657) 과 Kepler의 dioptrical ‘광굴절의’(1612); dioptrics ‘광굴절학’(1644); focus ‘초점’(1656); inertia ‘(물리) 관성’(1687); satellite ‘(천문) 위성’(1665) 등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살아 있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신조어들이 라틴어 또는 그리스어의 어휘요소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신조어가 독일어의 출처를 은폐하기도 하였지만, 신조어들이 유럽언어 속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의 학자들이 자연과학의 용어들을 국제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광업분야에서 독일어가 영어 어휘에 미친 영향은 다른 분야에서의 영향과는 아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 광업분야에서 영어에 차용된 독일어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접촉을 통한 직접적인 차용 그리고 구두 차용이었다. 독일은 광업이 영국에 비해 월등히 더 발전된 나라였기 때문에 이미 13세기에 독일의 광부들이 주석갱(Zinngruben)에서 일하기 위해 영국에 불러왔고, 16세기에는 영국에 있는 청동(광석)을 채굴하는데 참여하기 위한 영국과 독일의 협력이 있었다. 그러나 광업 분야에서의 최초의 문어의 증거는 17세기에 비로소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개 안 되는 어휘들뿐이었다: bismuth ‘Wismut, 비스무트’(1668); cobalt ‘코발트’(1683)<sup>18)</sup>; zinc ‘아연’ (1651) 등. 이러한 어휘들은 전문용어이외에서도 확대되고 널리 알려졌다.

16) ownhood는 Boehme의 Eigenheit의 차용번역이며, selfhood도 Boehme의 Selbheit 또는 Ichheit의 차용번역어이다. 그리고 Rosicrucian은 Christian의 Rosenkreuz의 차용번역어이며, Taborite는 15세기의 보헤미아의 후스파 중에서 전투파를 일컫는 말이다(참조:Stanforth 1996:47).

17) Paracelsus, Theophrast von Hohenheim(1493-1541): 의사이며, 자연과학자이다. Kepler, Johann(1571-1630):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 법칙을 발견한 사람으로 뉴턴이 만유인력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18) Scheler는 cobalt의 차용연대를 1728년으로 기록하고 있다(참조:Scheler 1977:29).

오늘날 영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고지독어 낱말들도 17세기에 처음으로 영어에 나타났다: to etch 'ätzen, 새겨 넣다'(1634); hamster Hamster, '일종의 큰쥐'(1607); hock, 라인지방산 '백 포도주'(1625); krummhorn '악기이름'(1694); masterpiece '걸작'(1605); psychology '심리학'(1693); sauerkraut '소금에 절인 양배추'(1617); to stroll '방랑하다'(1603).<sup>19)</sup>

또한 이 시대에 독일어와 네덜란드어에서 영어에 유입된 차용어로는 gulden 'Goldmünze, 옛 금(은)화'; doit '작은 네덜란드의 모자'; drill 'bohren, 구멍을 뚫다'(1611); slim 'thin, schlank, 날씬한'(1657) (OED 1989:IV 1083, XVII 426, IX 82, IV 1051, XV 705); burgomaster 'Bürgermeister (네덜란드의) 시장'; shirk 'schwänzen, 게으름 부리다' 등이 있다(1633)(Scheler 1977:27. 30).

#### 4.3.2 18세기

18세기에는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의 차용어수가 그 전세기에 비해 좀 증가하였지만, 차용어의 대부분은 18세기 후반부에 영어에 나타났다. 18세기 후반부에 독일어 차용어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18세기의 독일에는 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 Immanuel Kant (1724-1804) 그리고 Johann Wolfgang von Goethe(1749-1832)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 문필가 등이 있어서 이들의 작품이 영어로 번역되고, 영국에서도 널리 읽히기 시작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독일의 철학과 문학이 본격적으로 영국인들의 관심을 끈 것은 19세기에 와서 비롯되었고, 18세기에는 아직 독일어가 영어에 이렇다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sup>20)</sup>

19) 영어의 to etch는 원래는 그림의 커다란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과 함께 네덜란드어의 etsen에서 영어로 들어왔는데, 네덜란드어의 etsen은 고지독어의 ätzen의 차용어이다. 또한 hock는 독일 라인 지방산 백포도주를 뜻하는데, 실제로 Hochheim이라는 지방은 Rhein강가가 아니고 Main 강가에 있는 지방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해 Hockamore (<Hochheimer:Hochheim 지방에서 나는 포도주)에서 왔다. masterpiece는 현대독어의 Meisterstück을 번역한 차용 번역어이다. 또한 영어의 to stroll은 현대고지독어의 stolchen 또는 stollen에서부터 차용된 것 같다(참조: Stanforth 1996:49-50).

20) 특히 독일 하노버의 선제후였던 Georg I세가 1714년에 영국의 왕위에 올랐고, 이러한 독일(하노버)과 영국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가 1837년 Wilhelm IV세가

18세기에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 차용어를 영역별로 나누어 고찰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자연과학: infinitesimal ‘(수학) 무한소’(1706); statistics ‘Statistik, 통계’(1787); monad ‘(화학) 일가의 원소’(1748); phlogiston ‘(화학) 플로지스톤’(1730); ether ‘(화학) 에테르’(1757); titanium ‘(화학) 티타늄’(1796); uranium ‘(화학) 우라늄’(1797); tellurium (1800); (물리) Fahrenheit ‘화씨 온도계’(1753).<sup>21)</sup>

2) 광업 및 지질학: 광산학과 지질학에 관련된 표현들이 17세기 이후 독일어에서 영어로 많이 차용되었다. 또한 이때 차용된 어휘들은 아직도 전문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어휘는 잘 알려져 있는 어휘들이다: graphite ‘흑연’(1796); nickel ‘니켈’(1755); quartz ‘석영’(1756); feldspar ‘장석’(1757); gneiss ‘편마암’(1757); hornblende ‘각섬석’(1770); pitchblende ‘역청 우라늄광’(1770); coppernickel ‘Kupfernickel, 엷은 동홍색 니켈광’(1728); hornstone ‘각암’(1728); shale ‘Schale, 혈암’(1747).<sup>22)</sup>

3) 철학 및 문학: subjective ‘주관적인’ - objective ‘객관적인’(1790); transcendental ‘(칸트철학) 선형적’(1798); monadology ‘(철학) 단원론’(1728); preestablished harmony ‘(Leibnitz철학에서) 예정조화’(1741); erl-king ‘Erlkönig, 요정의 왕, 마왕’(1797).<sup>23)</sup>

---

죽은해까지 지속되었지만, 독일어가 영어에 미친 영향은 너무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21) infinitesimal은 라틴어의 infinitesimus로부터 왔으며, 오늘날까지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어의 기본어휘에 속한다. phlogiston은 화학언어에 기여한 최초의 독일어에서 차용되었으며, 온도측정단위인 Fahrenheit는 온도계의 화씨 눈금을 발명하였고, 온도계에 수온을 처음으로 사용한 독일의 물리학자 Gabriel Daniel Fahrenheit(1686-1736)의 이름에서 온 것으로, 오늘날에도 영국과 미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참조: Stanforth 1996:51-52).
- 22) 광산학과 지질학에 관련된 독일어 차용어는 이미 17세기부터 계속 이어졌으나, 18세기와 19세기에 많이 증가되었다. 이 학문분야에서의 독일어로 된 참고문헌들이 얼마나 중요했었는가 하는 것은 1960년대까지도 많은 영어권 대학들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 특히 지질학, 광물학 그리고 야금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졸업시험에서 독일어 실력도 함께 테스트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보고도 알 수 있다(참조: Stanforth 1996:48).

4) 음악 및 민속학: waltz ‘왈츠’(1781).

5) 음식: pumpernickel ‘조제한 호밀빵’(1756); noodle ‘국수’(1779).

6) 기타:gletscher ‘빙하’(1762); swindler ‘Schwindler, 사기꾼’(1775); caboose ‘Kombüse, Schiffsküche, ’(배의) 주방’(1769)(Scheler 1977:27-29); haversack ‘kleiner Rucksack, 잡낭’(1749); selzer ‘셀처 탄산수’(1741); veneer ‘베니어판’(1702); landau ‘랜도오 마차(2인승 4륜마차)’(1743); animal magnetism ‘취면술’(1784); crown prince ‘황태자’(1791); dynamics ‘원동력, 힘’(1789); home-sickness ‘향수’(1756); meerschaum pipe ‘해표석, 담배파이프’(1799); condominium ‘Kondominat, 공동통치(관리)’(1714); morgantic ‘귀천상혼(貴賤相婚)’(1727).<sup>24)</sup>

### 4.3.3 19세기

19세기가 되면서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의 차용어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는 19세기 후반부터는 독일이 유럽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강국으로 부상한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 독일의 학문이 많이 발전되어 자연과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과학분야에서도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세기의 독일의 철학, 문학, 언어학, 심리학, 음악 등은 유럽 각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당시의 독일의 교육제도도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었다. Carr(1934, 1940)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1458년부터 1935년 사이에 현대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는 모두 840개였는데 그중 반 이상(474개)이 19세기에 차용된 것이라 한다(Stanforth

23) preestablished harmony는 프랑스어의 harmonie preetablie를 거쳐서 영어에 유입되었고, erl-king 은 Goethe의 작품 Erlikönig(1782)의 제목을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이며, 시인인 Walter Scott(1771-1832)가 부분 번역한 것이다(참조: Stanforth 1996:51-52).

24) haversack는 현대고지 독일어의 Hafersack에서 차용되었는데, 아마도 프랑스어의 havresac를 거쳐서 유입된 것 같다. selzer의 올바른 형은 원래 selters (Nieder-Selter의 Mineralwasser)였다. veneer는 현대고지독어의 Furnier에서부터 차용되었다. animal magnetism은 Mesmer가 사용한 thierischer Magnetismus를 번역한 것이며, crown prince는 독일어의 Kronprinz의 차용번역어이다. dynamics는 아마도 Leibniz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home-sickness는 스위스-독일어의 표현 Heimweh를 번역한 것이다(참조: Stanforth 1996:51-52).



1996:53). 그리고 19세기에 차용된 독일어의 대부분은 1830년과 1850년 사이에 그리고 1870년과 1890년 사이에 영어에 유입되었다. 1830년과 1850년 사이에 차용된 어휘들은 주로 Thomas Carlyle<sup>25)</sup>의 영향 때문이었고, 1870년과 1890년 사이에는 특히 자연과학과 전문언어의 용어들을 독일어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19세기에 자연과학분야를 비롯한 문학, 철학, 언어학, 교육학, 심리학, 음악 그리고 기타 제반 영역에서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 차용어들을 전문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연과학

a) 지질학과 광물학: watershed ‘Wasserscheide, 분수계, 분수선’(1803); loess ‘황토’(1832)<sup>26)</sup>; triassic ‘삼첩기(층)’(1841); thalweg ‘산골짜기의 가장 낮은 점을 잇는 선’(1862)<sup>27)</sup>; kainite ‘카이 나이트’(1868); spiegeleisen ‘경철’(1868); kieselguhr ‘판상 규조토’(1875); geoid ‘지오이드’(1881); flaser ‘암석광맥’(1883).

b) 화학: morphia ‘모르핀’(1818); morphine ‘모르핀’(1828); alkaloid ‘알칼로이드’(1831); benzine ‘벤진’(1835); creosote ‘크레오소트’(1835); ozone ‘오존’(1840); biochemical ‘생화학의’(1867); menthol ‘멘톨올’(1876); enzyme ‘효소’(1881); saccharine ‘사카린’(1885); aspirin ‘아스피린’(1899); fusel (oil) ‘(화학) 퓨젤유’(1850).

c) 물리: entropy ‘엔트로피’(1868); ohm ‘오옴’(1861); spectrometer ‘분광계(分光計)’(1874); dynamo ‘발전기’(1882); X-rays ‘x 레이’(1896)<sup>28)</sup>.

d) 의학: homoeopathy ‘동종요법’(1826); bacterium ‘박테리아’(1847);

25) Carlyle, Thomas(1795-1881): 영국 스코틀랜드의 비평가·역사가; 그의 사상의 뿌리는 스코틀랜드의 형교(도)주의와 독일의 Kant, Fichte, Schiller, Goethe 등이 주장하는 이상주의에 두고 있었다. 그는 많은 독일어 서적의 번역과 비평적 글을 통하여 영국인들에게 독일의 정신생활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6) Manfred Scheler는 이 낱말의 차용연대를 1833년으로 보았다.

27) 영어로 기술된 thalweg은 그 당시의 독일어 정서법을 반영하고 있다. 즉 오늘날에는 t로 쓰지만, 당시에는 th로 썼다.

28) dynamo는 Werner von Siemens 가 만든 dynamo-elektrische Maschine를 번역하고 단축시킨 어휘이며, X-rays는 Röntgen의 X-선에 따라 만들어진 어휘이다.

sitz-bath 'Sitzbad, 좌욕'(1849); paranoia '편집병'(1857); streptococcus '연쇄상구균'(1877); tuberculin '투베르쿨린 주사액'(1890); heroin '헤로인'(1899).

e) 그 외의 자연과학 용어들: kohlrabi '구경 양배추'(1807); biology '생물학'(1819); protozoa '원생동물류'(1834); protoplasm '(생) 원형질'(1848); edelweiss '(식) 에델바이스'(1862); rinderpest '우역(소의 전염병)(1865); chromosome '(생) 염색체'(1890); plankton '(동) 부유동물(1892)(Stanforth 1996:53-54).

## 2) 문학

위에서 언급된 자연과학분야의 용어들은 대부분 게르만어의 조어요소들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어의 출처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과학분야에서의 독일어의 신조어는 자연과학분야에서 보다는 게르만-독일어적 어휘요소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정신과학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접촉점들은 독일의 문학과 철학 그리고 문헌학과 교육제도였다.

영국에서 독일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8세기 말 Henry Mackenzie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독일문학 연구의 절정기는 마담 Stael (Mme. de Stael)<sup>29)</sup>의 “독일에 관하여(über Deutschland)”(1813)과 함께 시작되어 1832년의 Goethe의 죽음(Goethes Tod)에 관한 Carlyle의 에세이로 끝이 났다고 볼 수 있다. Carlyle는 독일문학을 영국문학에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Goethe의 Wilhelm Meister's Apprenticeship(1824); Wilhelm Meister's Travels(1827)등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였다. Samuel Taylor Coleridge와 H. Crabb Robinson<sup>30)</sup>도 독일문학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독일문학에 관한 영국인의 관심은 1832년 이후 점차로 식어갔다. 그러나 Matthew Arnold (1822-88)의 글과 번역물을 통하여 잠시 동안 독일문학에 대한 영국인들의 관심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Arnold에 의해서 philistine(속

29) Anne Louise Germaine Staël(1766-1817):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여류작가.

30) Samuel Taylor Coleridge(1772-1834): 영국의 시인·비평가·철학자. Henry Crabb Robinson(1775-1867): 영국의 문필가.

물)와 philistinism(속물근성)과 같은 낱말들이 영어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다 (Stanforth 1996:55).

독일문학을 통하여 이 시대에 영어에 차용되어 아직까지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학어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dramaturgy ‘극작법’ (1801); mastersinger(meistersinger) ‘가인’(1810); genial ‘천재의’(1818); minnesinger ‘중세 독일의 음유시인’(1817년); time-spirit ‘시대정신’(1831); folk-song ‘민요’(1847).<sup>31)</sup>

### 3) 철학

이 시대에는 독일 문학의 영향보다 독일철학의 영향이 더 지속적으로 이룬 것 같다. Kant, Fichte, Schelling 그리고 Hegel과 같은 이 시대의 위대한 이상주의 철학자들은 위대한 문학과 마찬가지로 Coleridge 와 Carlyle와 같은 그들의 중재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초기 기간 중에 가장 많은 독일어 철학용어들이 영어에 기록되었는데, 그것들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차용어들이다: form ‘형상’, idea ‘이데아’, intuition ‘직관’, reason ‘이성’, understanding ‘오성’ (모두 1801-1802)<sup>32)</sup>; aesthetics ‘미학’(1802); categorical imperative ‘지상명령’(1817); nihilism ‘허무주의’(1817).

### 4) 언어학

19세기의 독일 언어학은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특히 독어학자인 Jacob Grimm의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부에는 소장문법학파가 20세기까지 계속 왕성한 활동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전통을 만들어냈다. 많은 언어학 용어들이 이러한 독일의 언어학분야에서 영어

31) mastersinger는 오늘날 특히 Richard Wagner의 오페라와 연계해서 잘 알려져 있다; genial은 1814년에는 Coleridge에게서, 1825년에는 Carlyle에게서 나타났다; time-spirit는 Carlyle가 현대고지독어의 Zeitgeist를 번역한 것이다. time-spirit와 folk-song은 회귀차용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고지독어의 Zeitgeist와 Volkslied는 원래 영어에서 독일어로 차용되어진 차용번역어이기 때문이다(참조, Stanforth, 1996: 55-56).

32) form, idea, intuition, reason, understanding 등의 어휘들은 Kant의 개념들에 대한 차용어들이다

속으로 유입되었다. 예를 들면 Germanist ‘독어독문학자’(1831); Indogermanic (1835); Middle English(1836); Germanic(1841); strong ‘강변화의, 악센트가 있는’ 과 weak ‘약변화의, 악센트가 없는’(1841); umlaut ‘변모음’(1860)<sup>33</sup>; ablaut ‘모음교체’(1871); loan-word ‘Lehnwort’(1874); Anglist (1888); ersatz ‘substitute, 대치’(1875); terminology ‘전문용어’(1801) 등이다.

### 5) 교육제도

19세기에는 독일 교육제도의 영향이 매우 컸지만, 이 분야에서의 어휘들은 그 영향만큼 많이 영어에 유입되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는 대략 15개의 낱말들만이 영어에 유입되었는데, 그중 단지 kindergarten ‘유치원’(1852), seminar(1889) 그리고 semester(1827)등이 아직까지 영어에 남아있다.<sup>34</sup>

### 6) 심리학

angst ‘공포’(1849); folk-psychology ‘민중심리’(1887); epiphenomenon ‘부대(附帶)현상’(1899); suppression ‘억압’(1894).<sup>35</sup>

### 7) 음악

이 시대의 독일음악이 영국 음악에 큰 영향을 주었음에도 이 분야에는 적은 수의 독일어 차용어들이 영어에 존재한다. 이는 국제적인-이태리의 전통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영국 음악용어들이 19세기 이전에 이미 완전히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영어의 음악용어에 미친 독일어의 기여가 이태리어가 기여한 것보다 훨씬 뒤져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독일어 음악용어들은 영어에서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다: kapellmeister ‘(합창단, 관현악단의) 지휘자, 악장’(1838); chorale ‘(합창)성가’ (1841: Choralgesang의 단축형); zither ‘찌터(현악기 이름)’(1850); schottische ‘쇼티시곡’(1855); alpenhorn ‘알프스 산중에서 목부(牧夫) 등이 쓰는 목제의 긴 피리’(1864); glockenspiel ‘종소리를 내는 소형의 건반악기’(1876); humoresque

33) Scheler는 umlaut의 차용시기를 1852년으로 보았다(참조: Scheler 1977:29).

34) Scheler는 semester의 차용연대를 1881년이라고 주장한다(참조: Scheler 1977: 29). 특히 semester는 미국영어에 남아있다. kindergarten은 1852년 유치원을 최초로 만든 Friedrich Fröbel이 죽은 해에 차용되었다(참조: Scheler 1977:30).

35) suppression은 Wundt의 Verdrängung에 대한 차용의미이다.

‘유머레스크’(1880); leitmotiv ‘시도동기(示導動機)’(1876: 때때로 leitmotif로도 사용됨); song without words(1871); singspiel ‘18세기에 유행한 독일의 가극’(1883); swan-song ‘백조의 노래’(1830); Volkslied ‘민요’(1858); yodel ‘요들’(1830).

### 8) 음식

schnap(p)s ‘네덜란드진(술)’(1818); kirschwasser ‘버찌술’(1819); pretzel ‘일종의 비스킷’(1897); delicatessen ‘조제식품’(1889), marzipan ‘과자의 일종’(1891); liverwurst ‘소세지의 일종’(1899); hamburger ‘햄버그 스테이크’; frankfurter ‘소시지’(1899); wienerwurst/wienie/winner ‘비엔나 소시지’(1899); bock beer ‘독한 흑맥주’(1856); beer-hall ‘비어홀’; rathskeller(1881); pumpnickel ‘조제한 호밀빵’(1881); kirsch ‘버찌’(1869); lager beer ‘맥주’(1853); kümmel ‘퀴멜주’(1882).<sup>36)</sup>

### 9) 기타

rucksack ‘배낭’(1895); poltergeist ‘도깨비, 유령’(1838); spitz ‘스피츠(작은 개)’(1845); fake ‘täuschen, 위조하다’(1812); foozle ‘그르치다’(1857); hinterland ‘배후지(背後地)’(1890); turner ‘체조협회 회원’(1881); turnfest (1881); turnverein ‘체조협회’(1881); hausfrau ‘주부’(1885); wunderkind ‘신동’(1885); bummer ‘Bummler, 건달’(1855); dahlia ‘다알리아, 모란의 일종’(1804); spook ‘유령’(1801: 미국영어에, 1859: 영국영어에 기록); handbook ‘안내서’(1814); poodle ‘푸들(애완견의 일종)’(1825); environment ‘환경’(1827); war-game ‘도상작전 연습’(1828); standpoint ‘Standpunkt, 입장, 관점’(1829); self-portrait ‘자화상’(1831); worldfamous ‘세계적으로 유명한’(1837); kursaal ‘요양의 집회장’(1849); passion play ‘예수 수난극’(1871); kulturkampf ‘문화투쟁’(1879); crematorium ‘화장로’(1880); dachshund ‘다크스

36) liverwurst는 독일어의 Leberwurst를 반 번역한 것이다. 즉 영어의 liver+독일어의 Wurst가 합쳐진 혼합 차용어이다. bock는 독일어의 Eimbocker Bier ‘beer of Eimbock’를 뜻하며, 독일어에서는 Bockbier로 단축되어 있다. beer-hall은 독일어의 Stehbierhalle에서 유입되었으며, lager beer는 오늘날에는 대체로 lager로 단축해서 쓴다. kümmel은 Likör와 관련이 있다(참조: Stanforth 1996:53-54; Scheler 1977:29).

훈트(독일개)'(1881); class-conscious '계급의식'(1886); airship 'Luftschiff, 비행선'(1888); chain-smoker 'Kettenraucher, 줄담배 피우는 사람'(1890); masochism '자기학대'(1893); taximeter '택시미터'(1894); tendentious '명확한 경향을 가진'(1900); Lebenslust '생의 애착'(1890); Volk '민족'(1880); Völkerwanderung '민족이동'(1885).<sup>37)</sup>

물론 많은 영국인들은 이러한 낱말들이 독일어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는 외국어를 흡수하는(동화시키는) 영어의 힘이 그처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tanforth 1996:58).

#### 4.3.4 20세기

20세기에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는 19세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20세기의 독일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1) 1차대전 이전 2) 1차대전 중 3) 1차대전후부터 2차대전까지 그리고 4) 2차대전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서 알아보겠다:

##### 1) 1차대전 이전 (1901-1914):

제 1차대전이 있기까지는 19세기와 같은 문화적인 영역, 특히 자연과학 분야와 정신과학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독일어가 계속해서 차용되었다:

a) 자연과학: bakelite '(화학) 베이클라이트(일종의 합성수지)'(1913); to activate 'radioaktiv machen, (물리)...에 방사능을 부여하다'(1902); relativity '(물리)상대성 이론'(1905); biogen '(생물) 생물 발생설'(1909); mutant '(생물) 돌연 변이체'(1901); veronal '(약학)베로날(진통·수면제의 일종)'(1903).

b) 정신과학: autism '(심리) 자폐성'(1912); complex(1910) '(심리); libido '(정신분석) 리비도'(1913); psycho-analysis (1906); superman 'Übermensch, (철학) 초인'(1903).

37) Stanforth는 poltergeist의 차용연대를 1871년으로 보고 있다. environment는 독일어의 Umgebung에 대해 Carlyle가 만든 차용어이다. masochism은 오스트리아의 문필가 L. von Sacher-Masoch의 이름에서 온 차용어이다(Scheler 1977: 29; Stanforth 1996:55-58).

음악: heckelphone (1905); tone-poem ‘음악시(교향시의 일종)(1902: 차용 번역어); music-drama ‘가극’(1909).

c) 기타: wanderlust ‘여행열, 방랑벽’(1902); Cartel ‘Kartell, 기업연합’(1902); festschrift ‘축하기념 간행물’(1901년); schnitzel (1913); Homburg ‘hat, 테가 좁은 중절모자의 일종.’<sup>38)</sup>

## 2) 1차대전중 (1914-1919):

1차대전과 함께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 차용어는 1차대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쟁의 와중에서 양국의 문화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영어에 유입된 얼마 안되는 독일어 차용어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ersatz ‘대용품’(1919); flame-thrower ‘화염 방사기’(1917); flammenwerfer ‘화염 방사기’(1915); mine-thrower ‘박격포’(1915); schadenfreude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1922); shock-troops ‘돌격 전용부대’(1918); strafe ‘(비행기에서) 기총소사하다’(1915) ; to strafe (1916); U-boat ‘잠수함’(1917); zeppelin ‘체펠린 비행선, 체펠린 비행선의 설계 제작자.’<sup>39)</sup>

## 3) 1차대전후부터 2차대전까지 (1919-1945):

1차 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베르사이유 협약에 의한 막대한 전쟁배상금

38) music-drama는 처음에는 Richard Wagner의 오페라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Übermensch는 Nietzsche의 신조어로서 현대 영어에 처음에는 overman(1895)으로 나타났으나, George Bernard Shaw의 번역으로는 superman(1903) 이었는데, 이것이 영어에 정착되었다; Cartel 은 독일어에서 회기 차용되었다. 왜냐하면, 현대 고지독어의 Kartell은 Agnes Bain Stiven의 조사에 의하면 영어로부터 1887년에 차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festschrift 라는 표현은 독일어의 Festschrift라는 사물과 함께 영어에 유입되었으며, 현대 영어에 정착되었다(참조: Stanforth 1996:58-59).

39) ersatz는 이미 1875년에 언어학 전문용어로 기록되었으며, 1919년에는 1차대전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졌다; strafe는 ‘독일어의 하느님이 영국을 벌주기를 바란다(Gott strafe England)’에서 유래되었고, to strafe와 U-boat는 2차대전에 관한 문학작품에서 사용되어졌다; flammenwerfer의 차용시기를 Scheler는 1939년으로 보고 있다. 독일어의 Schadenfreude 라는 낱말이 영어에 차용되기 전까지 영어에는 이러한 내용의 감정을 표현하는 정확한 낱말이 없었다(참조: Scheler 1977:29-30; Stanforth 1996:59).

지불과 프랑스의 루르지방 점령 그리고 세계경제공황의 여파 등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나치의 등장은 독일 문화의 전반적인 파괴를 의미하였다. 또한 2차 대전으로 영국과의 관계는 냉각되었고, 영어에 미친 독일어의 영향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 시기에는 1차대전 중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얼마 안되는 독일어 어휘들이 영어에 차용되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이 나치와 관련되었거나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었다:

a) 정치:diktat ‘강제적 명령’(1933); judenfrage; konzentrationslager; reich; genossen ‘당원들’; sieg heils; SS ‘나치의 친위대: Schutzstaffel의 준말’; Nazi(1930); Fuehrer(Führer) ‘지도자’(1934); putsch ‘반란’(1920).

b) 전쟁:Wehrmacht ‘국방력’(1939); totaler Krieg ‘총력전’; blitzkrieg ‘전격전’(1939); blitz ‘전격전’<sup>40)</sup>; panzer ‘기갑차량’(1939); flak ‘대공포화’(1939/40); tellermine ‘원반형지뢰’(1943).

c) 기타: kieselguhr ‘규조토’(1939); krummholz ‘굽은재목’(1939); pretzel (일종의 비스킷(소금뿌린 맥주안주); Lebensform(1937); lebensraum ‘생활권’(1939)(Stanforth 1996: 60-61; Scheler 1977: 29-30).

#### 4) 2차대전후(1945년 이후):

전후 독일은 모든 국제 기구에서 미·영·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1950년대 말부터 찾아온 독일의 경제부흥과 경제대국으로의 부상은 독일과 영·미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데 기여하였고, 독일의 상승된 위상으로 많은 독일어가 영·미 영어에 유입되었다. 2차 대전이후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 차용어를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정치: Bundestag ‘연방의회’(1949); Bundesverfassungsschutz ‘연방헌법수호’; Ostpolitik, Westpolitik(1970); the Mauer ‘die (Berliner) Mauer’(1962); fraktion ‘정파’; SED ‘(동독의) 독일통일사회당’; rathaus ‘시청’;

b) 경제: Deutschmarks ‘독일마르크(Pl.)’; gastarbeiter; wirtschaftswunder ‘경제기적’; D-Mark; Deutschmark; deutsche Mark; German mark.

c) 군사: Bundeswehr ‘연방군’; Abwehr ‘방어’; luftwaffe ‘공군’; Panzers ‘기갑부대’; Reichmarshal ‘제국원수’; sitzkrieg ‘교착전’.

40) blitzkrieg에서 단축된 blitz가 오늘날까지 널리 보급되어 있다.



d) 음식: bockwurst; bratwurst; eisbein ‘돼지족’; fisch ‘물고기’; hausfrauenart ‘가정주부의 습관 방식’; kalbsleberwurst; leberwurst ‘(돼지의) 간장순대’; nusstorte ‘호두파이’; rippchen ‘소 늑골’; sauerbraten ‘초에 절인 구은고기’; tafelspitz ‘소의 엉덩이 부분고기’; Sitzfleisch ‘불기(의 살)’(1971); wein ‘포도주’; wurst ‘순대’; quark ‘응유치이즈’.

e) 문학, 극장, 예술: bildungsroman ‘교양소설’; entartete kunst ‘변질된 예술’; kitsch ‘저속한 작품’; kitschy(kitschig) ‘저급한’; Kraftgenie ‘대천재’; lokalstück ‘향토극’; stegreifkomödie ‘즉흥코메디’; weltenschmerz ‘감상적 염세감정’; Gesamtkunstwerk ‘종합예술작품’(1968).

f) 음악: flugelhorn ‘플리리’; gebrauchsmusik ‘실용음악’; lieder ‘가요’; rauschpfeife ‘악기학’; Volksoper ‘민속가극’; werktreue ‘작품(원작)에 충실한 해설’.

g) 기타: Volkswagen; wanderung ‘이동’; wohngemeinschaften ‘한집에서 사는 공동거주(자)’; Innigkeit ‘성실함’(1964); mensch ‘존경받는 사람’(1967); abseiling ‘로오프로 내리기’; autobahn; beinhaus ‘납골당’; bierkellers; bitte; Boxhalle; donner und blitzen; du; einzäunung ‘담을 두름’; federbett ‘새털요’; -fest (songfest:합창회); forschungsaufgabe; gemütlich ‘아늑한’; gemütlichkeit ‘아늑함’; hausfreund ‘가족의 벗’; herr; himmel, Engländer; historismus; hitzefrei ‘하기휴가의’; knochen; lederhosen ‘가족바지’; notgelt ‘긴급화폐’; Oktoberfest; Reeperbahn ‘함부르크의 변화가’; rowdygruppen ‘폭행그룹’; rowdytum ‘난폭, 폭행’; S-Bahn; schlamperei ‘타락’; schützen; Sie; steppdecke ‘누비이불’; stimmung ‘기분’; stollen ‘무두질하다’; Volkswanderung(1952); Judenrat ‘유대인 평의회’(1950)(Stanforth 1996:29-30).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세기 들어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 차용어는 19세기에 비해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학문분야에서의 전문용어는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까지만 영어에 유입되었을 뿐이었다. 1차 대전부터 2차 대전 종료까지에는 주로 전쟁과 관련되었거나 나치정권 때에 새로 등장한 나치용어들이 영어에 많이 유입되었다. 영국인들이 생각하는 나치는 전형적인 게르만 정신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2차대전후부터는 미·영·독일이 동맹관계에 있었고, 독일의 경제적 성장으로 독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이는 언어관계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이 결과 영어에 유입되는 독일어 차용어는 점점 더 증가하였다. 특히 2차 대전후 음식과 관련된 독일어 어휘들이 영어에 많이 차용되었는데, 그것들은 전후 영국, 미국, 독일간의 잦아진 인적 교류와 급격히 증가한 여행의 물결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 문학, 음악, 예술, 정치, 경제, 일반 사회 영역 등에서도 점차로 많은 독일어가 영어에 차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 5. 맺는말

본 논문에서는 고대영어에서 현대영어에 이르기까지 영어에 차용된 독일어 낱말들은 어떤 것들이었고,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언어차용에 작용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고대 영어시대에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 차용어는 주로 교회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었는데, 이는 당시 양열작센족의 대륙선교와 관계가 있으며, 중세 영어시대에는 영국과 대륙의 한자도시들과의 교역으로 인하여 해상활동과 관련된 독일어 어휘들이 영어에 많이 유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고대에서 중세까지는 지리적인 이유로 주로 저지독일어와 네덜란드어가 영어에 많이 차용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영국광산업은 독일광산업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16세기 후반부터 독일의 광부들이 영국의 광산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광산업과 관련된 많은 독일어 낱말들이 이때부터 영어에 차용되었다. 그리고 18세기부터는 독일의 과학을 비롯한 문학, 철학, 음악, 교육 등의 학문분야에서 많은 독일어 전문어휘들이 영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분야에서의 독일어의 영향은 독일 학자들의 업적이 널리 알려지게 된 19세기에 그 절정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영어에 미친 독일어의 영향은 19세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20세기의 독일은 전쟁과 냉전의 격전장이 되어 오랜 기간동안 혼란과 고통의 기간을 겪으면서 문화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의 차용이 본질적으로는 문화적인 영향과 함께 차용된다는 사실이다. 즉 역사적으로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의 어휘들은 대체로 새로운 독일의 문화적 산물과 함께 영어에 차용되었으며, 이는 영어에 없었던 어휘를 보충하기 위해서 차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대영어와 중세영어에 유입된 교회생활이나 해상활동과 관련된 독일어 차용어가 그러하며, 현대영어에서도 많은 독일어 차용어들이 영어에 없었던 어휘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Festschrift(축하기념 간행물(논문집))라는 독일어가 영어에 차용되기 이전까지는 영국에는 이러한 논문집을 만드는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영어에 있는 Wiener라는 낱말은 순대의 종류를 말하는데, 이것은 독일인 이주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함께 가지고 들어온 음식을 뜻하는 낱말이다(Stanforth 1996:17-18).

그러나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언어의 차용이 모국어에 없는 어휘들, 즉 모국어 어휘조직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만 이루어진다던가 또는 문화적으로 덜 발전되었기 때문에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세 영어시대에 독일어에서 차용된 여러 가지 군사용어들은 이미 영어에 있었던 어휘들을 밀어내고 영어에 정착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대영어에서 사용되는 garb(옷)이라는 어휘는 원래는 고대 고지독일어의 garawe(갑옷)라는 군사 용어에서부터 유래되었는데, 그 당시 고대영어에는 이미 갑옷을 뜻하는 gearwe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이 단어는 고지독일어에서 유입된 차용어와의 경쟁에서 밀려나 살아지게 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문화적인 영향이 언어적인 영향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16세기 17세기에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든가 18세기에 시작되었던 독일(하노버)과 영국의 군함국관계로 인한 독일과 영국의 정치분야에서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19세기의 독일의 교육제도나 음악이 영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에도 이 분야에서 영어에 미친 독일어의 영향은 비교적 미미했었다는 것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역사적으로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 차용어는 독일어에 유입된 영어차용어(김 건환 2000)와 비교해 볼 때, 그 수에 있어 엄청나게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영어는 어휘적으로 볼 때 하나의 게르만-로만어의 혼합어이며, 영어에는 프랑스어휘 자산이 독일어 어휘 자산보다 조금 더 많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Ph. Aronstein(1925: 64f)의 연구에 의하면 영어에 들어있는 라틴어-프랑스어의 비율은 대략 55%이고, 게르만어 출처의 영어어휘는 단지 35%에 불과하다고 한다. 영어에 유입된 독일어의 차용어가 프랑스어의 차용어보다 적은 이유는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중세이후 유럽에서 가장 문화가 발전된 나라로 군림했으며, 프랑스 혁명이나 나폴레옹의 유럽제패 등과 같은 유럽에 관심과 충격을 주었던 커다란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신성로마제국이라는 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소규모의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어서 프랑스나 영국보다 모든 분야에서 늦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독일에는 프랑스 혁명과 같은 영국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만한 그러한 큰 사건들도 없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가졌던 독일에 대한 관심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고, 특히 1990년의 독일통일을 계기로 독일은 명실 상부하게 유럽연합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 15개국 인구의 1/4 이상이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속에서 앞으로의 영국과 독일의 관계는 물론 독일과 미국과의 관계도 많은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욱 더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의 경제, 학문,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독일의 문화 전체가 새롭게 부상(비약)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래에는 틀림없이 독일어 차용어가 영어에 더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김건환(1999), 언어 접촉과 차용어(I) - 독일어에 나타난 라틴어 차용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인문과학 논총 제 32집, 51-65.  
 김건환(2000), 언어 접촉과 차용어(III) - 독일어에 유입된 영어 차용어를 중심으로, 한국 독어독문학 교육학회, 독어교육 제 20집, 191-217.  
 Aronstein, Ph.(1925), Englische Wortkunde, Leipzig.

- Bergmann, Karl(1912), Die gegenseitigen Beziehungen der deutschen, englischen und französischen Sprache auf lexikologischen Gebiete, Dresden und Leipzig.
- Brockhaus Enzyklopädie(1966-1974), Wiesbaden.
- Carr, C. T.(1934), The German Influence on the English Vocabulary, Society for Pure English Tract 42 (Oxford).
- \_\_\_\_\_ (1940), Some Notes on German Loan-Words in English, MLR 33, 69-71.
- Görlach, Manfred(1982), Einführung in die englische Sprachgeschichte, Heidelberg.
- Kluge, Friedrich(1975),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New York.
- König, Werner(1985), dtv-Atlas zur deutschen Sprache, München.
- Koziol, Herbert(1967), Grundzüge der Geschichte der Englischen Sprache, Darmstadt.
- Müller, Helmut M.(1994), Schlaglichter der Weltgeschichte, Bonn.
- Müller, Helmut M.(1996), Deutsche Geschichte in Schlaglichtern, Mannheim.
- OED2(1989):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Second Edition. Prepared by J. A. Simpson and E. S. C. Weiner (Oxford).
- Polenz, Peter von(1978),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New York,
- Pyles, Thomas u.a.(1993),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language, Fort Worth, Philadelphia.
- Scheler, Manfred(1977), Der englische Wortschatz, Berlin.
- Standforth, Anthony W.(1996), Deutsche Einflüsse auf den englischen Wortschatz in Geschichte und Gegenwart, Tübingen.
- Stone, Ruth M.(1934), Studien über den deutschen Einfluß auf das amerikanischen Englisch, Marburg (Diss.).

## Zusammenfassung

### Sprachkontakt und Lehnwörter (IV)

#### - Deutsche Einflüsse auf den englischen Wortschatz -

Kim, Kun Hwan(Konkuk Univ.)

In meiner Arbeit habe ich versucht zu untersuchen, welche deutschen Wörter historisch in die englische Sprache entlehnt wurden und welche politischen, sozialen, wirtschaftlichen, kulturellen und militärischen Hintergründe in der jeweiligen Zeit bei dem Entlehnungsprozess eine Rolle gespielt hatten.

Durch meine Untersuchung habe ich bemerkt, dass die deutschen Wörter von der Altenglischen Zeit bis jetzt ständig Einflüsse auf die englische Sprache ausgeübt haben:

In der Altenglischen Zeit wurde zwar nur ein paar Wörter aus der christlichen Kirche aus dem Althochdeutschen ins Altenglische entlehnt, aber allmählich wurden die deutschen Wörter aus vielen verschiedenen Bereichen ins Englische entlehnt, wie z. B. aus dem des Bergbaus, der Seefahrt, der Wissenschaft, der Literatur, der Philosophie, der Musik, des Schulwesens usw.

Es ist auch verständlich, dass ungefähr bis zum 16. Jahrhundert die deutschen Lehnwörter im Englischen aus geographischen Gründen meistens aus dem Niederländischen bzw. aus dem Niederdeutschen stammten.

Die Zahl der deutschen Lehnwörter im Englischen erreicht im 19. Jahrhundert den höchsten Stand, weil in dieser Zeit die deutsche Wissenschaft, besonders die Naturwissenschaft, Philosophie, Literatur und Musik weltweit sehr bekannt waren.

Die Lehnwörter wurden normalerweise zusammen mit kulturellen Einflüssen, oder um eine Lücke des Wortsystems der heimischen Sprache auszufüllen, entlehnt. Aber ich habe bei meiner Untersuchung auch bemerkt, dass die kulturellen Einflüsse manchmal keinen Einfluss auf die Entlehnung des fremden Wortschatzes ausüben und die Entlehnung der Wörter keinen Zusammenhang mit einer Lücke im Wortsystem der heimischen Sprache aufweist, d. h. die Wörter können auch entlehnt werden, obwohl die entsprechenden Wörter schon in der heimischen Sprache vorhanden sind. Und manchmal wurden die ausländische Kultur angenommen, ohne ein Wort aus diesem Bereich entlehnt zu haben.

Bemerkenswert ist auch, dass die deutschen Lehnwörter im Englischen im Vergleich zu den englischen Lehnwörtern im Deutschen beziehungsweise den französischen Lehrwörtern im Englischen zahlenmäßig sehr gering sind, weil

Deutschland historisch gesehen in Europa eine nicht so große Rolle gespielt hatte wie England bzw. Frankreich.

Aber ich bin sicher, dass in Zukunft mehr deutsche Wörter als bisher aus verschiedenen Bereichen ins Englische entlehnt werden, weil Deutschland nach dem zweiten Weltkrieg in der Welt wirtschaftlich sehr viel Bedeutung zukommt und besonders in der Europäischen Union politisch, wirtschaftlich und finanziell eine sehr große Rolle spielt und weiter spielen wird.